



‘조선 성곽 건축의 꽃’ 수원화성-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은 조선 시대 정조대왕이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능침을 양주 배봉산에서 조선 최대의 명당인 수원 화산으로 천봉하고 화산 부근에 있던 읍치를 팔달산 아래 지금의 위치로 옮기면서 축성됐다.

수원화성은 수원의 도심 전체를 둘러싼 전체 길이 5.4km의 읍성 형태 성곽으로 돼 있다.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소를 인근으로 옮기고 현릉원이라 이름 지은 후 다산 정약용에게 설계를 명령했다. 1792년 초안에서는 성곽의 길이가 4.2km였지만 1794년에서 1796년까지의 축성 과정에서 1km가량이 늘어났다.

화성 성곽은 부드러운 곡선 형태로 이어지며 들쭉날쭉 지어졌다. 화성의 건축 과정을 기록한 비석 ‘화성기적비’에는 봄의 버들잎 같은 모양으로 지었다고 기록돼 있다. 팔달산 아래 유천 즉, 버들개천이라는 지명이 있었는데 정조도 “성벽을 세 번 구부리고 세 번 꺾으면 이름처럼 ‘내 천자 모양이 됐다’고 평했다.

중간중간에 설치된 ‘방어시설’은 수원 화성이 기존의 읍성이나 성곽과 확연히 다른 부분이다. 일반적인 읍성은 야트막한 담장이 이어질 뿐 별다른 방어 기능이 없지만 화성은 100m 간격의 방어시설이 있다. 이 시설은 모두 48개소로 문, 대, 둔, 누 등으로 크게 나뉜다.

문(門)은 평상시에 출입하는 성문, 적의 눈에 띄지 않는 암문, 물이 흘러가는 수문으로 나뉜다. 대(臺)는 성문의 좌우에 솟아서 적을 감시하는 적대, 장수가 부대를 지휘하는 장대, 깃발을 흔들거나 쇠뇌를 쏘는 노대로 구분된다. 둔(墩)은 감시를 하거나 포를 쏘는 곳으로

망루와 같은 공심둔, 봉화를 피우는 봉둔이 있다.

누(樓)는 주변을 한눈에 바라보는 각루, 포를 쏠 수 있게 튀어나온 포루(砲樓), 군사들이 몸을 숨길 수 있는 포루(鋪樓)의 3가지로 나뉜다. 이외에도 성벽에 접근하는 적군을 공격하도록 튀어나온 치성(雉城), 군사가 머무르며 기거하는 포사(鋪舍)도 있다. 이처럼 다양한 방어 시설을 갖춘 성곽은 우리나라에서 수원화성이 유일하다.

성문은 동서남북 4개가 있었다. 동문은 창룡문, 서문은 화서문, 남문은 팔달문, 북문은 장안문이라 이름 지었다. 성문 밖에는 웅성, 즉 향아리같이 둥근 성벽을 돌려서 외적이 대포나 무기로 성문을 직접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수원 화성은 석재, 목재, 벽돌을 함께 쓴 독특한 건축물이다. 과거부터 이어지던 전통적인 기술을 한층 개선해 적용하기도 했고, 중국과 서양 등 해외의 기술을 도입하되 부단한 노력으로 우리의 것으로 승화시켜 짓기도 했다.

전쟁 대비뿐 아니라 일상생활을 위해 하천을 준설하고 상업 활성화를 위해 도로망을 확충하는 등 고도의 설계 능력과 그 안에 담긴 실용성도 돋보인다. 1997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것도 이런 혁신성을 인정받은 결과로 볼 수 있다. ❶

